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WSJ: 9월 물가 전년 대비 3%...예상치는 3.1%
- SeekingAlpha: 10월 미 CPI 발표 힘들 수도
- YahooFinance: 미 소비자들, “미 경제 2022년 이래 최악”
- YahooFinance: 공식 통계 없지만 연준 금리 0.25% 하락 예상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올해 32개 미 은행 대상 스트레스 테스트 한다
- WSJ: 내년 사회보장 연금 2.8% 인상
- WSJ: 고용 증가없이 성장 가능 기업 늘어

[무역전쟁]

- Bloomberg: 버냉키, 엘런 등 50명 경제학자, 법원에 트럼프 관세 비판 의견서 제출
- Bloomberg: 미정부, 트럼프 시진핑 회담 앞두고 중국 관세 조사
- NYT: 지금까지는 기업이 소비자들을 관세로부터 보호했지만...

[중국 경제]

- WSJ: 중국의 산업 수익 강한 성장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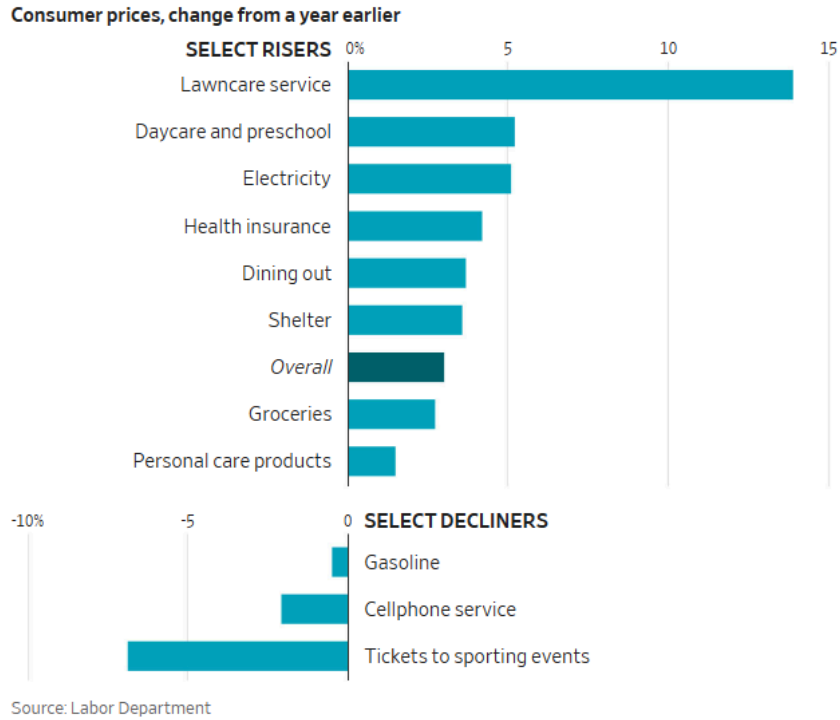
- HBR: 탁월한 협상가를 결정짓는 요소

[미국 경제]

WSJ: Inflation Edges Up, But Less Than Expected, to 3% Rate

9월 물가 전년 대비 3%...예상치는 3.1%

- 9월 미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월에 비해 3.0% 상승했다. 8월의 2.9%보다 약간 높았으나 예상치 3.1%보다 약간 낮았다.
-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핵심 물가도 연 3% 상승했으며 예상치 3.1%보다 약간 낮았다.
- 구체적으로 에너지 물가는 8월에 비해 1.5% 올랐는데 가솔린 가격 상승이 주도했다. 의류는 0.7%, 가정용 가구/비품은 0.2% 상승했다.



WSJ 기사

SeekingAlpha: October CPI likely won't be released next month, White House says

10월 미 CPI 발표 힘들 수도

- 9월 미 소비자 물가가 발표될 수 있었던 이유는 1) 연방정부의 섯다운이 10월 1일에 시작됐으나 관련 자료는 이미 조사되었고 2) 법적으로 내년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 산정 조정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었다.
- 그러나 연방 노동청은 10월에 연방 섯다운이 계속되기 때문에 10월 물가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. 백악관 대변인은 이로 인해 기업체들과 시장, 가구들, 연준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.
- 구체적으로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물가 조사관들이 현장에 파견되어 조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.

SeekingAlpha 기사

YahooFinance: Consumers Haven't Felt This Bad About the Economy Since 2022

미 소비자들, “미 경제 2022년 이래 최악”

- 미시간대 설문조사에 따르면, 미국인들의 10월 경제 인식은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.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, 여름철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며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.
- 응답자의 60% 이상은 내년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, 70%는 정부가 물가와 고용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.
- 또한 응답자 절반 가량은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여전히 높은 물가가 개인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답했다.

YahooFinance: Fed expected to cut rates again, even as officials fly blind without data

공식 통계 없지만 연준 금리 0.25% 하락 예상

- 연준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섯다운으로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0.25%p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- 민간 데이터와 일회성 데이터에 따르면 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 한편 인플레이션율은 둔화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-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관세 등 일회성 요인만으로 설명되고 어렵고 경기 둔화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. 또한 일부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 및 자동차 대출 부도율 상승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신호로 떠오르고 있다고 경고 했다.
- 한편 연준은 고용 둔화 리스크를 이유로 추가 인하 여지를 열어두고 있으며, 올해 안에 한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더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.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Fed Expands Shock Scenarios for Banks in Annual Stress Test After SVB Collapse

올해 32개 미 은행 대상 스트레스 테스트 한다

- 연준은 올해 지역은행들의 붕괴 이후에 광범위한 금융 쇼크가 발생할 경우 은행들이 이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.
- 최근 발표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는 올해 3월에 실리콘 밸리은행과 Signature Bank 붕괴 이후 처음 진행되는 연례 점검으로,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.
- 올해는 자산이 1천억불 이상의 은행 32개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. 테스트는 향후 수개월간 실시되어 결과는 내년 6월 발표될 예정이다.
- 이번 시나리오에는 실업률이 6.5%에서 최대 10%까지 상승했을 경우, 상업용 부동산이 40% 까지 하락할 경우 등 극단적 경제 충격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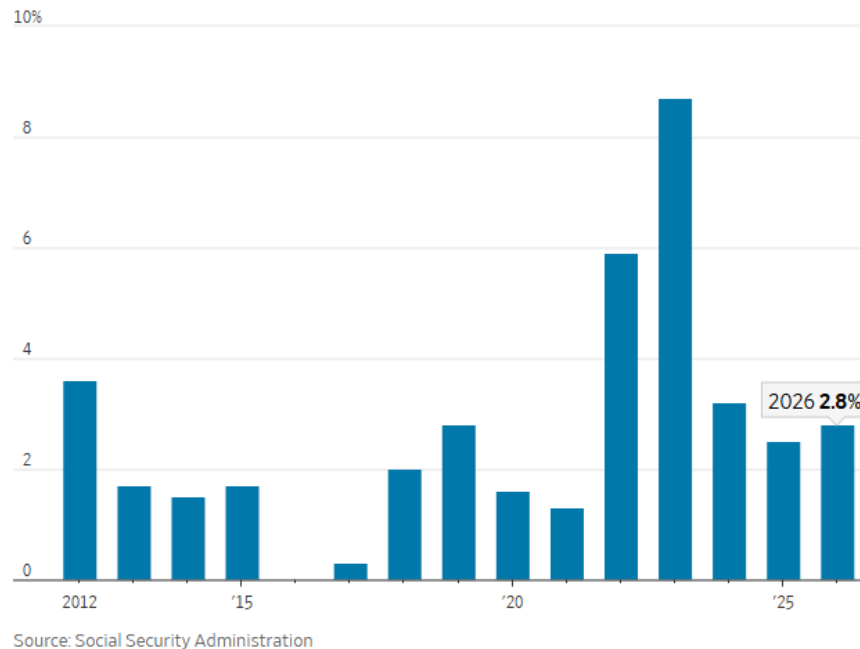
WSJ: Social Security Is Giving Retirees a 2.8% COLA Bump for 2026

내년 사회보장 연금 2.8% 인상

- 미 은퇴자들을 위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내년에 2.8% 인상된다.
- 이에 따라 월 평균 수령액은 \$2,064로 5천3백만명이 그 금액을 받게 된다.
-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연금을 조정하는 '생활비 조정 The cost-of-living adjustment (COLA)'이 지난해 2.5% 인상된 바 있다.

- 한편 메디케어의 외래 및 의사 진료에 해당하는 파트 B는 대략 매달 21.50 달러 인상될 예정으로, 이는 COLA를 통해 늘어나는 매월 상승분 56달러의 38%를 차지한다.

Social Security COLA, by year



WSJ 기사

WSJ: More Big Companies Bet They Can Still Grow Without Hiring 고용 증가없이 성장 가능 기업 늘어

-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인력 확대 없이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.
- 대표적으로 JPMorgan Chase, Goldman Sachs, Walmart 등은 추가적인 고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Target은 전체 인력의 약 8%를 감축하기로 했다.
- 기업들은 AI를 도입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운영을 효율화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대신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.
-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인력 축소가 기존 직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미래 리더 양성 노력을 제한하여 기업에게 장기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.

WSJ 기사

[무역 전쟁]

Bloomberg: Trump Tariffs Panned by Bernanke, Yellen in Supreme Court Filing 버냉키, 옐런 등 50명 경제학자, 법원에 트럼프 관세 비판 의견서 제출

- 전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, 재닛 옐런 등 거의 50명에 가까운 경제학자들은 연방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트럼프의 관세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잘못된 개념

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관세 조치들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- 이들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무역 적자는 예상된 것이며,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한대로 대통령 비상 권한을 발동한 '비정상적이고 놀라운'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.
- 연방 법원은 이 같은 외부 의견서를 전달받은 상태이며 오는 11월 5일 양측 변호인들의 구술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US Launches Fresh China Tariff Probe Ahead of Trump-Xi Meeting

미정부, 트럼프 시진핑 회담 앞두고 중국 관세 조사

-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에 새로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 조사를 시작하고 있어 이로 인해 다음 주에 있는 양국의 정상 회담을 앞두고 긴장이 커지고 있다.
- USTR의 Jamieson Greer는 최근 중국이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미국과 체결한 한정적인 무역 협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의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.
- 구체적으로 중국이 무역 1단계 합의를 얼마나 지켰는지 그리고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미국의 피해에 대해 어떤 대응조치를 중국이 취해야 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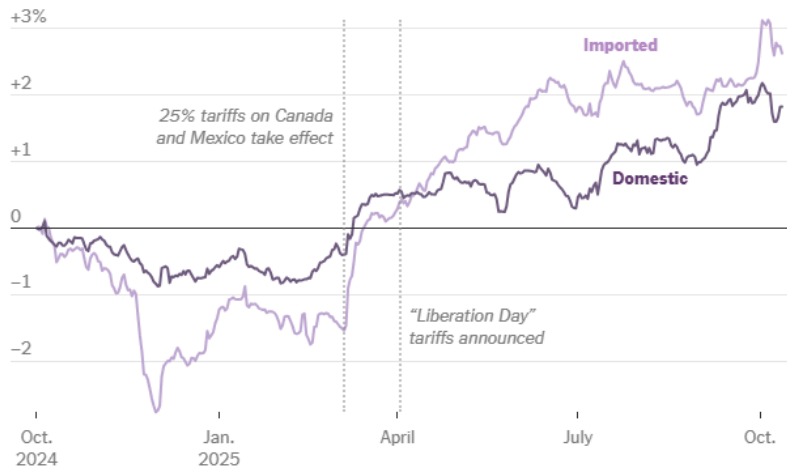
NYT: Companies Have Shielded Buyers From Tariffs. But Not for Long.

지금까지는 기업이 소비자들을 관세로부터 보호했지만...

-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매월 관세로 3백억들 거둬들이고 있다. 그런데 지금까지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지고 있어 소비자들에 대한 여파가 제한적이었다. 그러나 이제는 물가 상승으로 부담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.
- 골드만 삭스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미국 기업들은 새로운 관세 중 37%는 소비자에게, 9%는 공급업체들에, 그리고 51%는 자사가 부담했었다.
- 그러나 앞으로는 예컨대 자동차, 장난감, 차(tea) 등은 관세가 기업들의 수익을 압박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.

How Tariffs Bleed Over to Domestic Goods

As new duties have kicked in, American-made products have gotten pricier too.



Source: Harvard Pricing Lab analysis of prices from four large retailers. By The New York Times.

NYT 기사

[중국 경제]

WSJ: China Industrial Profits Keep Up Strong Growth

중국의 산업 수익 강한 성장

- 중국의 9월 산업 이익이 21.6% 급증하며 8월 20.4% 상승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. 이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끝낸 뒤 어이치는 상승세로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이다. 또한 조사 대상 기업의 73.2%가 9월에 매출이 증가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.
- 이번 증가는 정부의 과잉 생산 축소 노력, 기술 혁신, 전년의 낮은 기저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- 중국 정부는 공장 출하가 디플레이션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 전반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HBR: What Makes a Great Negotiator, According to Research

탁월한 협상가를 결정짓는 요소

- 전통적으로 협상은 '성과를 얻느냐, 관계를 지키느냐'의 양자택일로 여겨졌지만,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이분법임이 드러났다. 성공적인 협상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.
- 협상은 '성과'와 '관계'의 이차원 구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협상가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.
 - Integrated Achievers: 성과도 높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협상가 (Ex. Nelson Mandela -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그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대신 공감과 신뢰로 설득했다. 단호한 원칙을 지키면서

도 상대의 두려움과 이해관계를 존중해, 협상 상대를 적에서 파트너로 바꿨다.)

- Competitive Maximizers: 성과는 높으나 관계 형성은 다소 부족한 협상가
(Ex. Margaret Thatcher - 그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 개혁을 이끌었지만, 지나친 대립적 접근으로 내부 협력 기반을 약화시켰다.)
- Accommodating Harmonizers: 성과는 낮으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협상가
(Ex. Neville Chamberlain - 제2차 세계대전 전, 그는 Adolf Hitler와의 협상에서 '평화 유지'를 우선시하며 양보를 거듭했다. 결과적으로 단기적 평화는 얻었지만, 장기적 안보를 잃었다.)
- Destructive Negotiators: 성과도 낮고 관계 형성도 부족한 협상가
(Ex. Adolf Hitler - 그는 협상을 지배의 수단으로만 인식해 신뢰를 무너뜨리고, 모든 관계를 파괴했다. 결과적으로 자신뿐 아니라 상대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했다.)
- 또한 탁월한 협상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메타 역량을 갖추고 있다.
 - Language & Emotionality: 감정과 언어 조절 능력
 - Negotiation Intelligence: 협상 지능(전략적 사고력)
 - Relationship Building: 관계 형성 능력
 - Moral Wisdom: 도덕적 통찰력
- 결론적으로 협상의 성패는 '성격'이 아니라 '역량'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. 탁월한 협상가는 단호함과 공감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역량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낸다.

HBR 기사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